제26호(2012. 8. 22)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

김 동 원 이 병 훈 김 광 선 박 혜 진

1. 조사 배경 및 개요 ····· 3
2. 마을회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5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송미령** 연구위원 02-3299-4351 mrsong@krei.re.kr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마을회관은 19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 주도로 행정단위의 리·동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에 3만 6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지역에 따라서는 마을회관의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여전히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주민들의 집회 장소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과 이용자 층도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 및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농업인)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의 공간(93.9%)과 경로당(84.6%)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사마을의 85.5%가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으로서 운영 프로그램과 정책 지원도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화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마을회관의 활용도는 85.6%로 높은 편이지만, 마을회관으로만 이용되는 단일형의 경우에는 10곳 중 3곳 이상이 유휴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마을회관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과 부녀자이며, 조사마을의 82.3%가 마을회관에서 노인 중심으로 점심 등 공동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마을회관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시설은 대부분 노인층에 지원되고 있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합커뮤니티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10곳 중 6곳은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마을회관이 농촌지역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중요하다는 인식(88.8%)이며, 마을회관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임.

따라서 농촌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마을회관의 새로운 기능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특히 행정적으로 마을회관의 관리 주체가 모호한 실정이므로 관련 부처의 정책 대상과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마을의 인구 구성과 도심에서의 거리, 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마을회관 관리·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1. 조사 배경 및 개요

▢ 전국 마을회관 3만6천여개 운영,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시설

○ 농촌지역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회관은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추진을 위한 주민회의 공간으로 거의 모든 마을에 건립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에 36,49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1)]

- 마을회관은 명칭과 기능이 변해왔지만 농촌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되어 왔음

▢ 인구 특성 변화로 커뮤니티 기능 약화, 경로당화 뚜렷

○ 농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율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인구 특성 변화는 마을회관의 기능과 이용자층의 변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약해지고 노인중심으로 경로당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마을회관을 둘러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 및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 검토 필요

○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인 이용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였음. 따라서 마을회관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도시민 체험방문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마을회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시점임

1)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통계청)

▢ 조사 개요

○ 이 조사는 농촌지역 마을회관 운영과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함

○ 조사 범위는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즉, 마을주민들의 공식적인 집회와 마을을 대표하는 모임장소로서의 공공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시설로 한정하되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경로당 기능을 포함함

○ 조사 내용은 마을 및 마을회관 기본 현황과 지대별, 형태별(건물, 운영 등) 운영 특성과 장단점, 마을회관의 세부기능, 시설과 상태, 다양한 활용(공동식사, 공공서비스 등)에 따른 실태 등임

-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마을회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점과 정책수요를 발굴함

○ 조사 대상을 전국 행정리 단위 마을로 하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사업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함

- 조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2] 1,94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충실하게 응답한 625건의 조사표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농가경영주가 중심으로, 성비와 연령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조사결과 해석에 참고해야 함

- 조사 응답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과반수가 넘는 53.2%로 평균 64.9세임. 응답자 마을의 지대는 산간 18.0%, 중산간 53.4%, 평야지 28.6%임

2. 마을회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1. 마을회관 운영 실태

▢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이 조사마을의 85.4%로 대다수를 차지

○ 마을회관 건물형태는 1층 단일건물 53.3%, 1,2층 복합형 40.0%로 조사됨. 운영형태로는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이 85.4%로 대부분 차지

-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마을회관은 20.0%로 나타났고, 건물면적은 132m^2(40평) 미만이 60.6%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좁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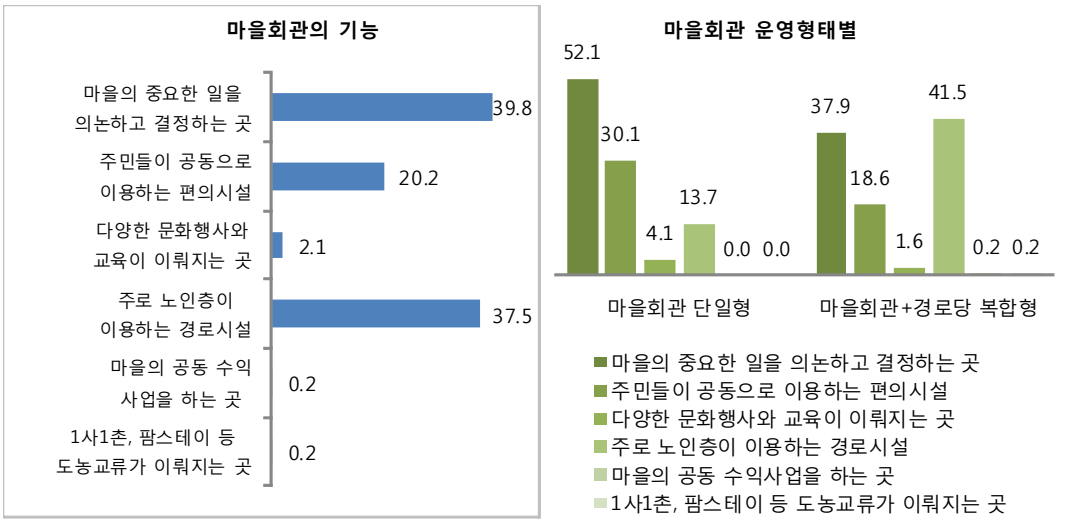
▢ 마을회관 기능, 커뮤니티시설> 경로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인식

○ 마을회관의 가장 주된 기능을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39.4%)',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20.3%)'이라고 응답

-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이라는 응답도 38.0%로 나타나 노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이용실태를 반영
-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이용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경로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마을회관 단일형 이용자보다 3.2배 정도 높았음

그림 1. 마을회관의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단위: %



▢ 마을회관 10곳 중 2곳은 노인회장이 운영 책임

○ 마을회관 운영책임자는 '이장'이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마을 대표자가 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노인회장'이라는 응답도 24.1%로 나타나 노인회장이 마을회관 운영을 주도하는 비율도 높은 편

표 1. 마을회관 운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책임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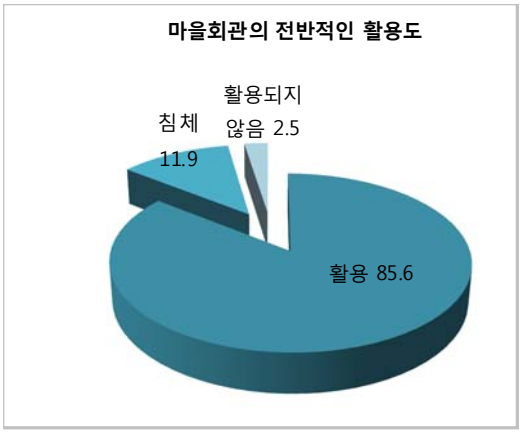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이장	418	68.0
청년회장	7	1.1
부녀회장	16	2.6
노인회장	148	24.1
마을개발 위원장	23	3.7
기타	3	0.5
합계	6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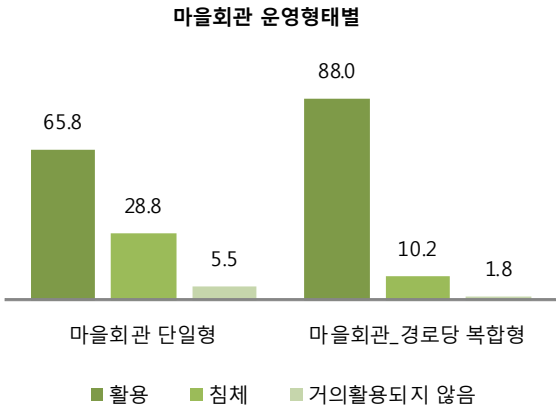
▢ 마을회관 '잘 활용된다' 85.6%

○ 마을회관이 '잘 활용된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8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침체된 편'이 11.9%,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2.5%
- 긍정적인 평가는 마을회관 단일형 65.8%,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88.8%로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활용도가 23%p나 높았음
- 마을회관 단일형은 10곳 중 3곳 이상이 유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마을회관의 전반적인 활용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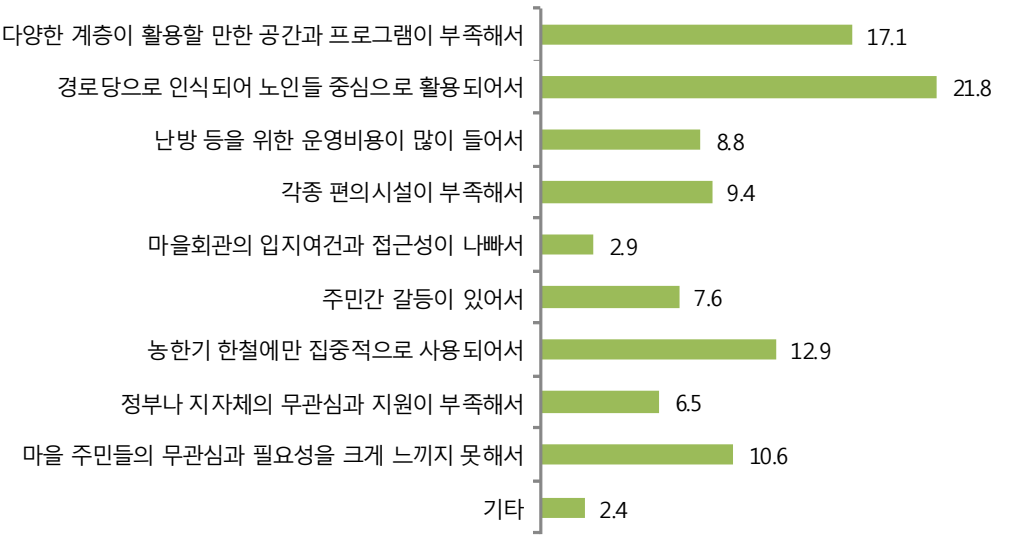




○ 마을회관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로당으로 인식되어 노인들 중심으로 활용되어서’ 21.8%,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7.1% 등으로 응답, 마을회관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체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인식도 있음

그림 3. 마을회관이 잘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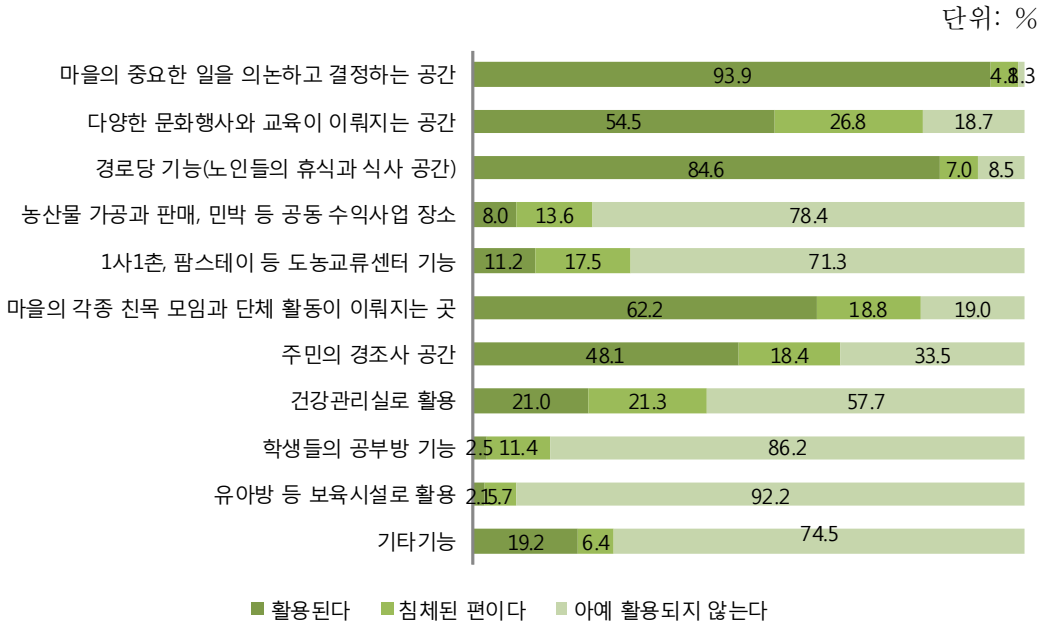


▢ 마을회관 전통기능 중심으로 활용, 다양한 수요 반영 못해

○ 마을회관의 기능을 11개로 세분화해 활용도를 파악한 결과에서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간’ 기능은 93.9%, ‘경로당 기능(노인들의 휴식과 식사 공간)’은 84.6%로 나타나 두 기능이 압도적으로 활용도가 높음

- ‘마을의 각종 친목 모임과 단체(조직)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 62.2%,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54.5%, ‘주민의 경조사 공간’ 48.1%로 나타나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유아방 등 보육시설(7.8%)’이나 ‘공부방(13.8%)’, ‘마을 공동수익사업을 하는 곳(21.6%)’, ‘도농교류센터 기능(28.7%)’ 등은 거의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마을회관 세부기능별 활용도



▢ 마을회관 주 이용자는 노인과 부녀자 층

○ 마을회관에 모이는 사회단체나 조직으로는 '노인회'가 6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회(62.6%)', '부녀회(63.7%)', '마을개발위원회(52.8%)' 등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활발한 조직으로는 '노인회(36.7%)'와 '마을회(24.5%)'이며, 연평균 모임횟수는 '노인회'가 평균 33.8회로 가장 많은 모임횟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녀회(7.8회)', '마을회(7.6회)' 순으로 나타남
- 마을회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도 '노인층(46.4%)', '부녀자층(39.3%)'임

▢ 마을회관 회의시설과 교육시설 부족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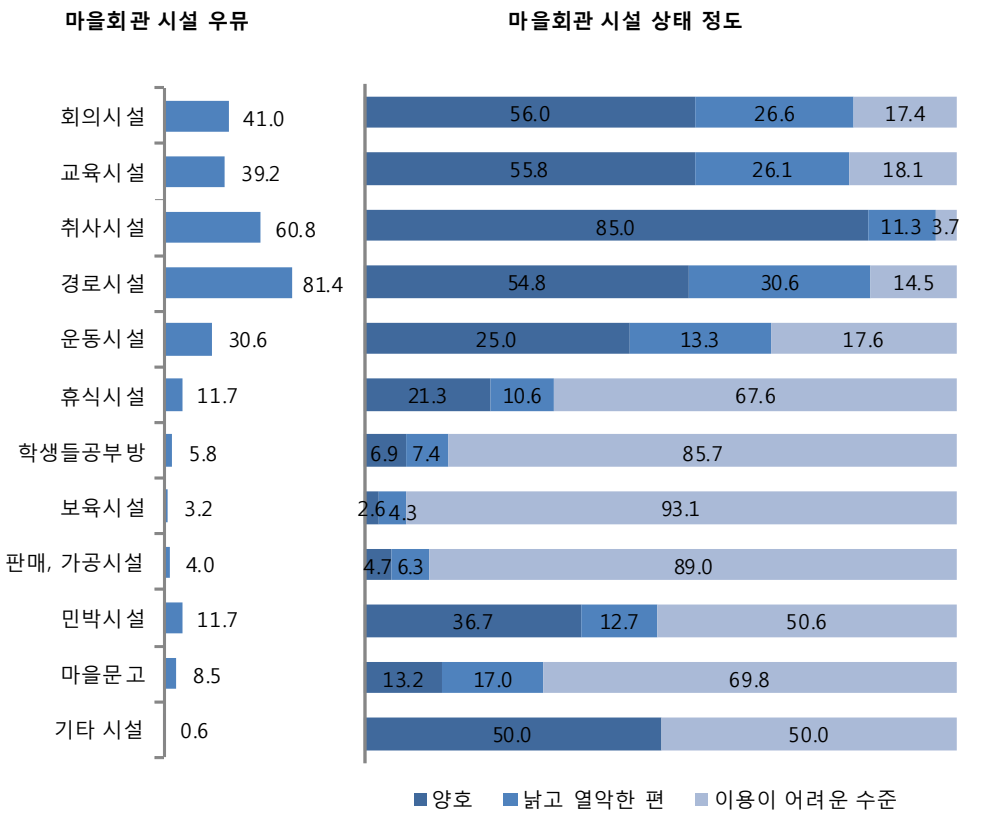
○ 마을회관 건물의 외관과 내부 상태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83.5%(매우 포함)로 높게 나타남. '낡고 열악하다(14.7%)', '이용이 어려운 수준(1.9%)' 등 건물상태가 열악하다는 응답도 16.6%임

○ 마을회관에 '경로시설' 즉, 방으로 구성된 휴식시설은 81.4%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식사를 위한 '취사시설'도 60.8%가 있다고 응답

- 마을회관 본래기능에 필요한 '회의시설'과 '교육시설'은 각 41.0%, 39.2%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판매·가공시설', '학생들 공부방'은 '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해 이들 시설이 유휴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마을회관 시설 유무와 상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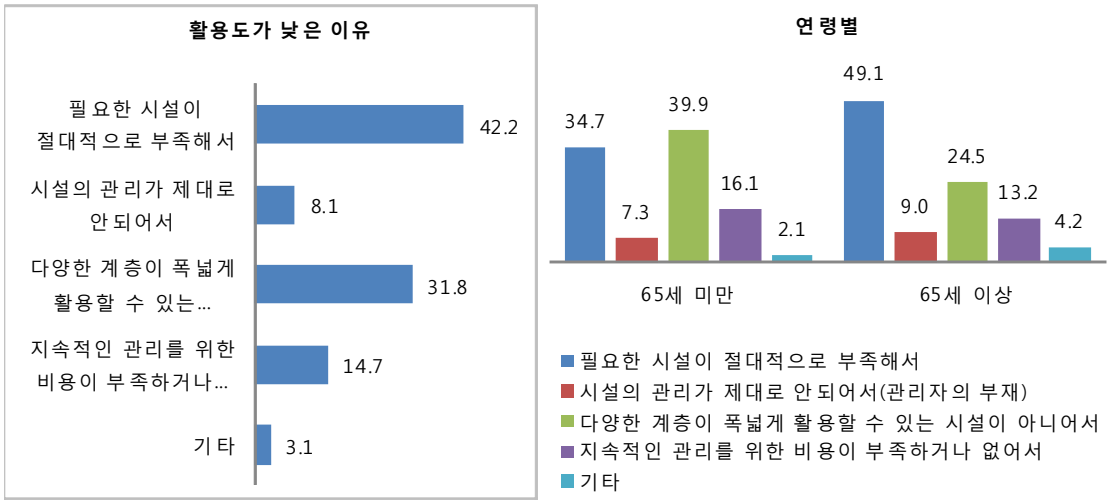
▢ 마을회관 시설 활용도 낮은 이유 '필요시설 절대 부족' 꼽아

○ 마을회관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설문자들은 '필요한 시설 절대 부족(42.2%)'과 '다양한 계층 활용 시설이 아니어서(31.8%)'를 가장 많이 꼽았음

- 65세 미만에서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그림 6. 마을회관 시설들의 활용도가 낮은 사유

단위: %



○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64.9%)'가 대부분이고, '심야전기 보일러(32.6%)', '태양열 보일러(0.8%)' 등 에너지 절감형은 10곳 중 3곳 정도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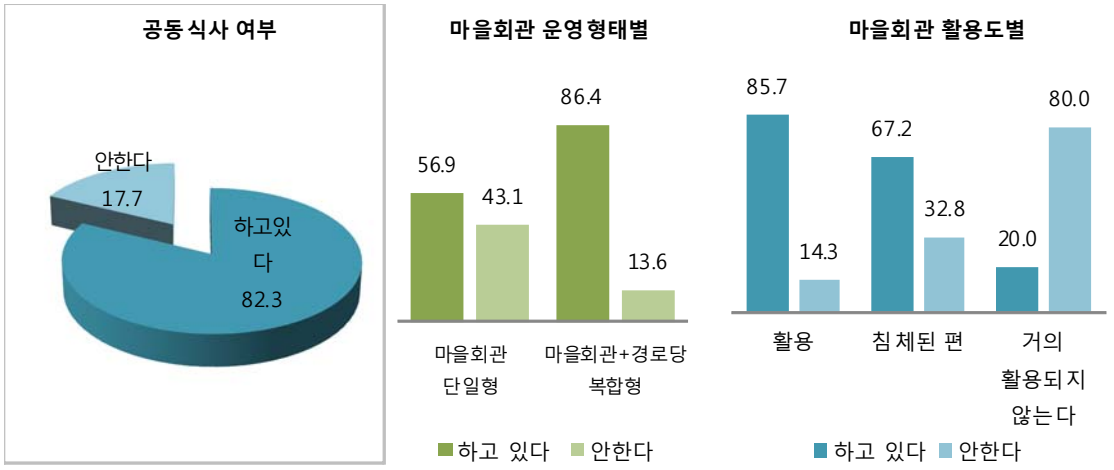
▢ 마을회관 10곳 중 8곳은 공동식사 운영

○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는 마을은 82.3%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공동식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 복합형'이 86.4%로 '단일형(56.9%)'에 비해 높음

그림 7. 마을회관 공동식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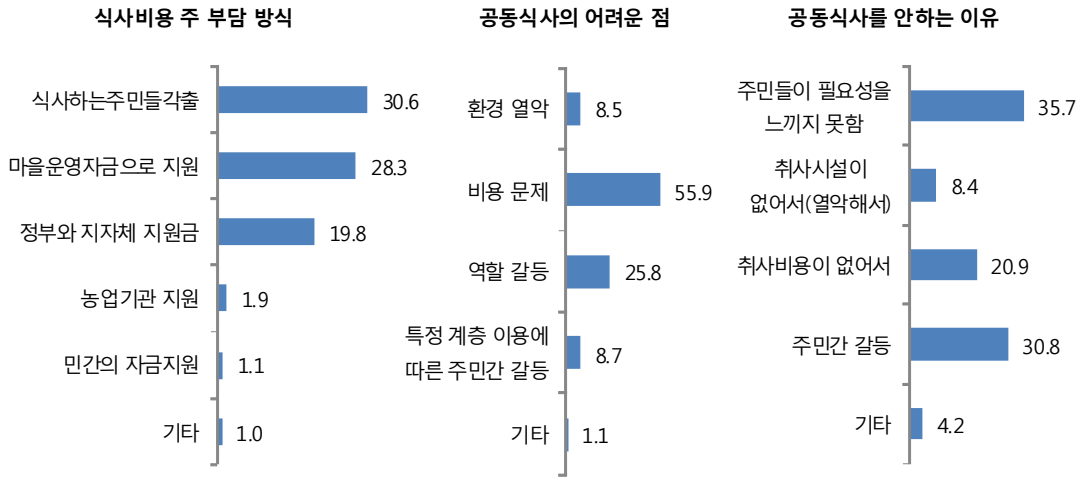


○ 공동식사는 '농한기(동절기)에 집중된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남
- 공동식사는 대부분 하루에 '한끼'(69.4%)를 하고 있으며, '두끼' 22.3%, '세끼'를 해결하는 경우는 4.9%로 조사됨
- 공동식사 주 이용자는 '노인층'이 73.3%, '부녀자층'이 22.7%로 이용이 많았으며, 장년층과 청년층은 각각 5.8%, 0.6%에 그침

○ 마을회관 식사 비용을 '식사하는 주민들이 갹출한다'는 응답이 30.6%, '마을 운영자금으로 지원' 28.3%,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19.8%

그림 8. 마을회관 공동식사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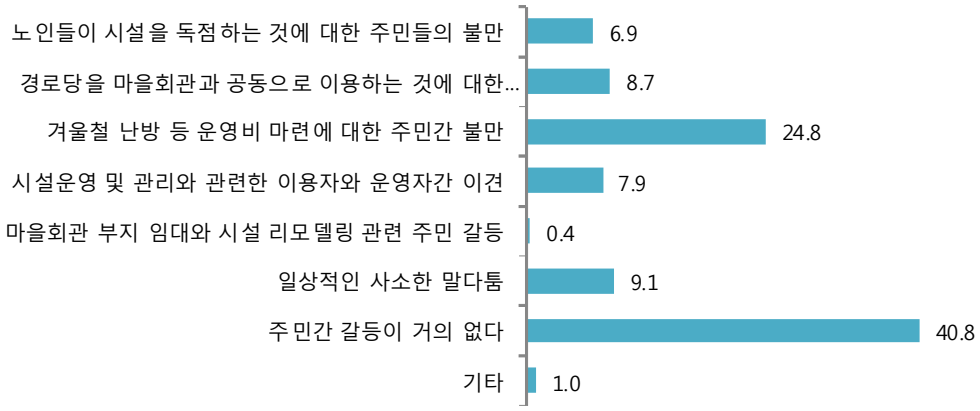


▢ 마을회관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은 '운영비'가 주원인

○ 마을회관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 사유에 대해 '주민간 갈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나, '겨울철 난방 등 운영비 마련에 대한 주민간 불만'이 24.8%, '일상적인 사소한 말다툼'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마을회관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의 가장 큰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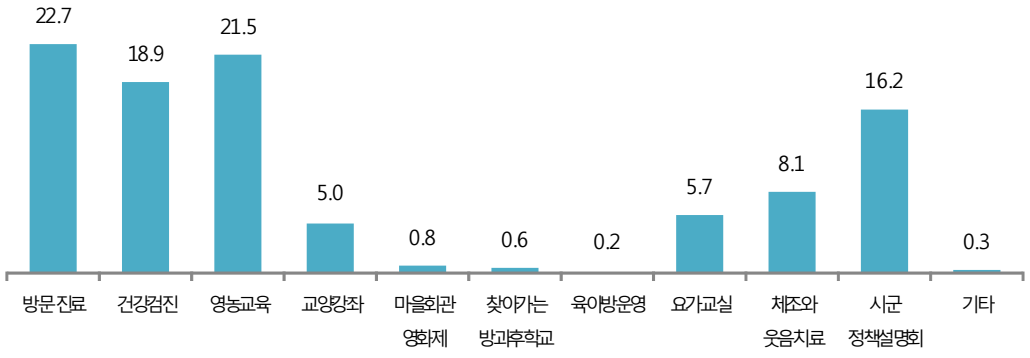


▢ 마을회관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건강 관련 서비스에 집중

○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정부나 지자체 주관)는 '방문진료' 22.7%, '영농교육' 21.5%, '건강검진' 18.9%, '시군 정책설명회' 16.2% 등을 꼽아 노인중심의 건강 관련 서비스에 집중됨

그림 10. 연중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단위: %



○ 마을에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공동시설 유무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82.6%로 대부분을 차지해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음

-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으며 그 시설로는 건강관리실, 다목적 공간, 체험관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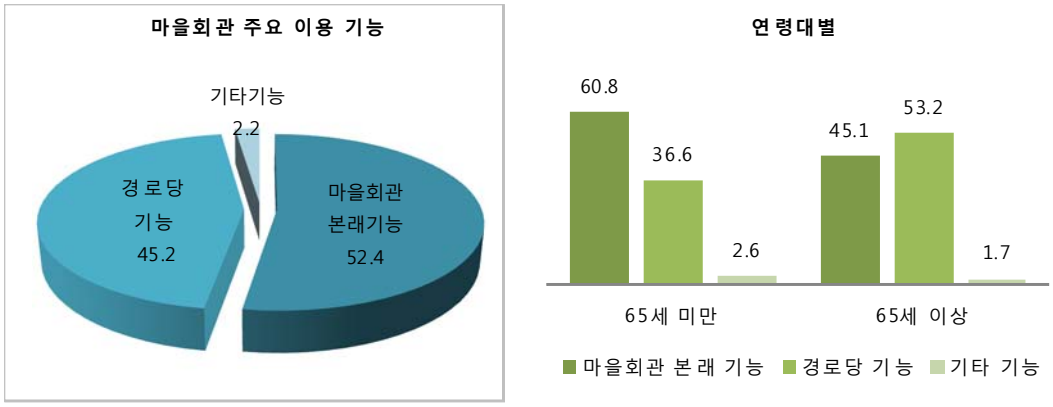
2.2. 마을회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 마을회관의 주요 이용 기능 젊은층과 노인층 달라

○ 마을회관 주요 이용 기능은 '마을회관 본래 기능(모임, 편의시설 등)' 52.4%, '경로당 기능' 45.2%로 나타남
- 특히 65세 미만인 계층은 '마을회관 본래 기능(60.8%)'을, 65세 이상인 계층은 '경로당 기능(53.2%)'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마을회관 주요 이용 기능

단위: %



▢ 마을회관 이용 농한기에 집중

○ 마을회관 이용 빈도는 연간 이용 일수가 '50일 미만' 60.4%로 나타나 상당수가 주 1회 미만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방문 시 이용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66.8%로 가장 많았음

○ 마을회관의 집중 이용 시기는 '겨울철(농한기)'이 72.7%로 가장 많았고, '1년 내내' 이용한다는 응답은 20.7%로 조사됨

▢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는 주민과 대화를 위해

○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로는 '주민과 대화(외로움 해소, 49.2%)'와 '각종 경조사와 회의(33.9%)'를 가장 많이 꼽았음
- 65세 이상에서는 '주민과 대화(외로움 해소, 62.2%)'를, 65세 미만은 '각종 경조사와 회의(49.1%)'를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로 들었음

표 2.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난방 해결	식사	주민과 대화 (외로움해소)	운동과 휴식	문화활동	각종 경조사와 회의	영농정보 획득	이용하지 않는다
65세 미만	3.0	2.2	34.8	3.4	-	49.1	4.9	2.6
65세 이상	4.8	2.0	62.2	3.7	1.0	20.1	2.4	3.7
합계	3.9	2.1	49.2	3.6	0.5	33.9	3.6	3.2

▢ 마을회관 이용에 개인별 비용 '지불한다' 26.1%

○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나 자율적인 운영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0.6%, 15.5%로 26.1%가 크든 작든 마을회관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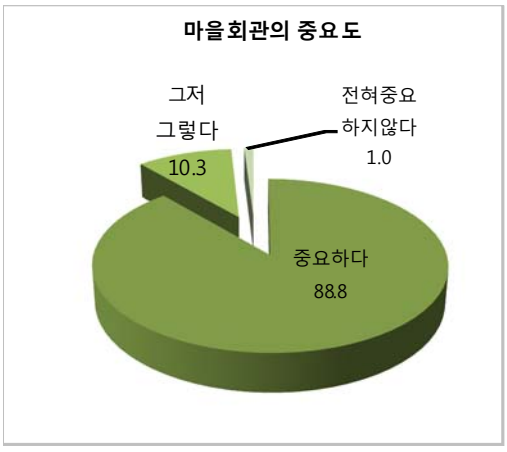
▢ 마을회관 '주민 소통과 마을발전에 중요' 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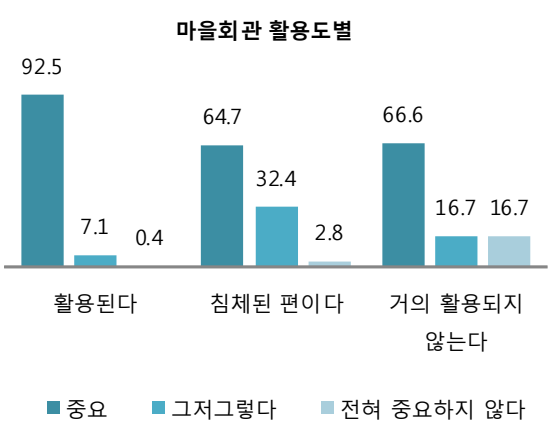
○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전에 '중요한'(매우 포함) 시설이라는 응답이 88.8%에 달해 대부분 마을회관을 중요한 시설로 인식

- 마을회관이 잘 활용된다는 응답자가 마을회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2.5%인 반면, 침체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64.7%로 나타나 활용도와 중요도 인식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그림 12. 주민소통과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회관의 중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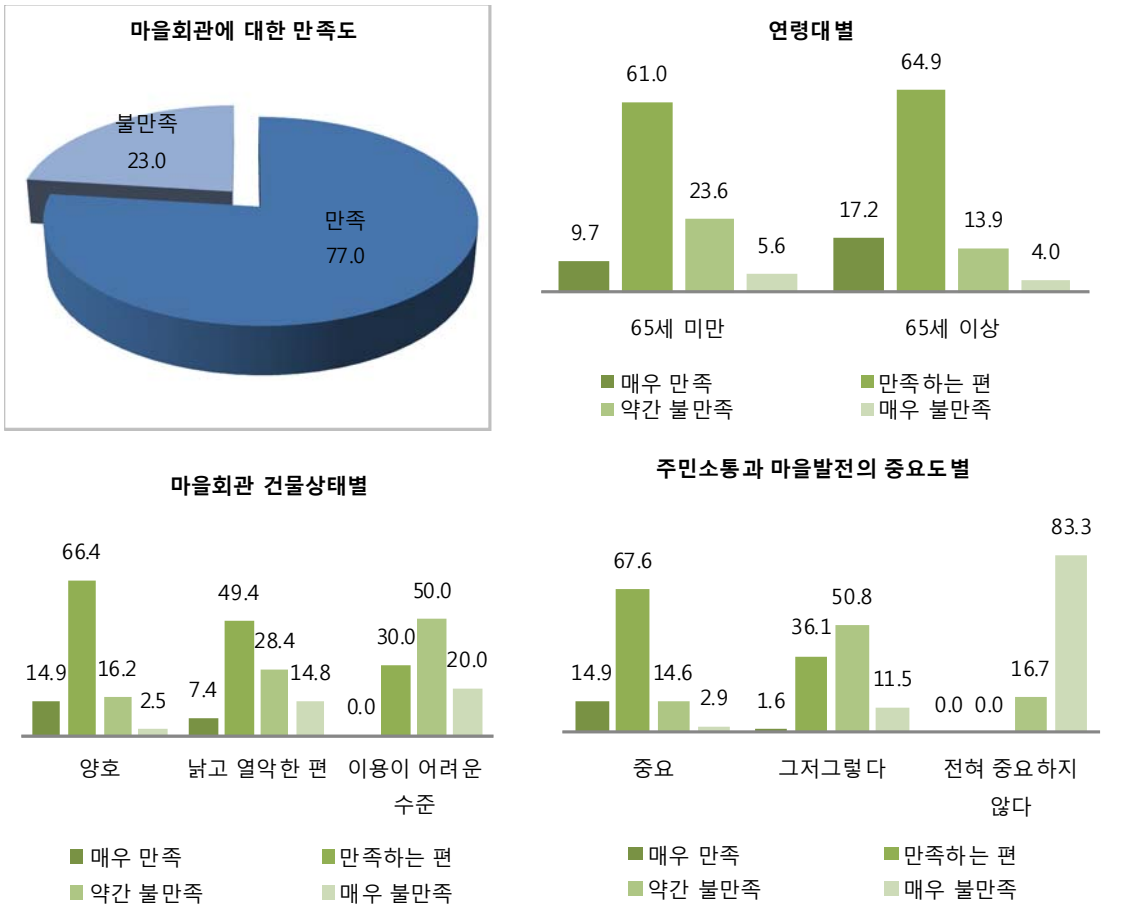
▢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에 불만족 23.0%, 젊은층 만족도 낮아

○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77.0%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23.0%

- 연령대로 보면, 6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불만족 비율이 29.2%로 65세 이상(17.9%) 보다 11.3%p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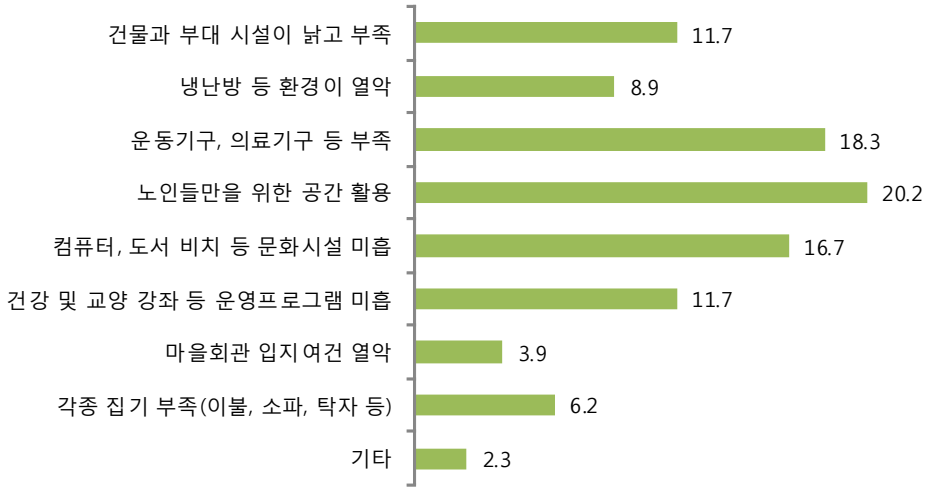


○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에 대한 불만 이유로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 활용'이라는 의견이 20.2%로 가장 많았고,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부족'이 18.3%, '컴퓨터, 도서 비치 등 문화시설 미흡'이 16.7%의 순

- 마을회관 이용 주민들은 보다 다양한 기능을 원하고 있으나 노인 중심의 시설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타남

그림 14. 마을회관 이용 불만족 이유

단위: %



2.3. 마을회관 운영 개선과 정책 수요

▢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과 지원 '부족하다' 69.7%

○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부족하다(매우 포함)'는 의견은 69.7%, '충분하다(매우 포함)'는 의견은 27.4%

- 마을회관 건물상태와 이용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마을회관 지원 기준 노인회와 일반주민간 '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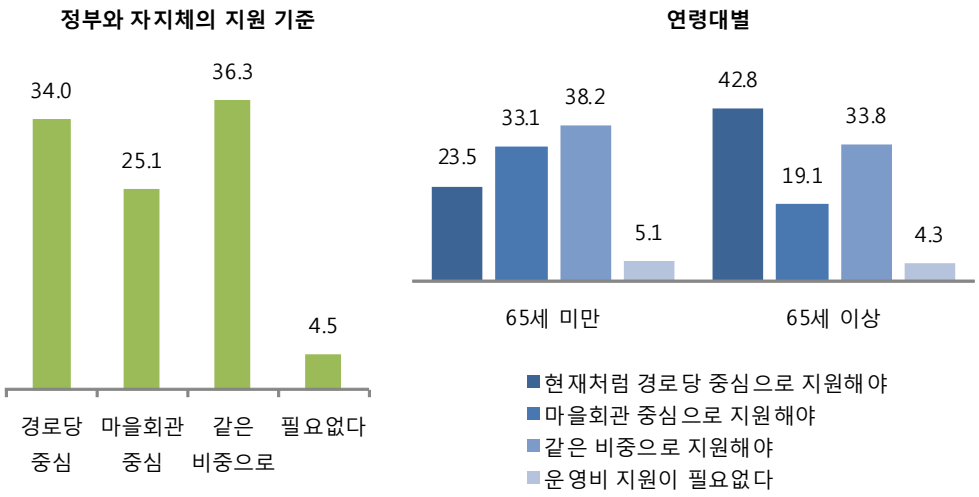
○ 현재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경로당에 한해 난방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 대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운영비를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6.3%로 나타남

- '현재처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구분해 운영비는 경로당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34.0% 조사됨
- '마을회관은 주민 공동시설이므로 운영비를 마을회관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5.1%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65세 미만일수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65세 이상일수록 경로당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노인회와 일반 주민간 의견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5.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기준 인식

단위: %



▢ 농촌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의 기본 기능 중시해

○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강화되어야 할 마을회관의 기능을 6가지로 구분해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마을회관 본래의 중심 기능인 '커뮤니케이션센터' 기능이 6.0점 만점에 5.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케어센터' 4.05점, '문화센터' 3.54점, '주민편의센터' 3.48점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수익사업센터'와 '도농교류센터' 등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각 2.45점, 2.19점 등으로 낮은 순위를 매겨 농촌 변화에 따른 마을회관 기능 확장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 환경 변화에 따른 마을회관 기능의 우선순위

구분	가중평균*
커뮤니케이션센터(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정보교류, 모임의 장소)	5.30
노인케어센터(노인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쉴 수 있는 곳)	4.05
문화센터(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양강좌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곳)	3.54
주민 편의센터(찜질방 등 휴식과 운동, 학생들 학습장소 등)	3.48
수익사업센터(농산물 가공 판매, 민박 등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2.45
도농교류센터(1사1촌,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	2.19

주: *는 1순위 6점, 2순위 5점, 3순위 4점, 4순위 3점, 5순위 2점, 6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한 평균값임(사례수는 512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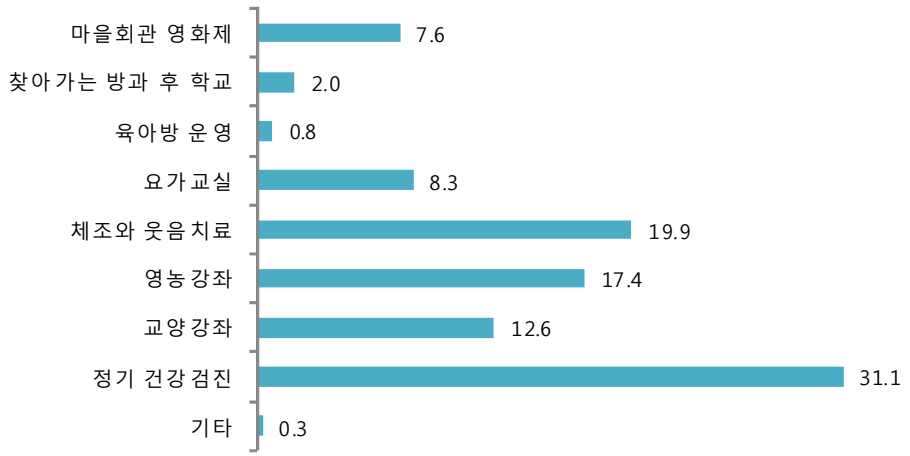
▢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 관련' 수요 가장 많아

○ 마을회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능으로는 '정기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31.1%) 꼽았으며, '체조와 웃음치료' 19.9%, '영농강좌' 17.4%, '교양강좌'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수요가 가장 많았음

○ 마을회관에 최우선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로 '물리치료실(2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목욕탕(샤워실)' 14.4%, '헬스장(운동시설)' 11.8%, '공동급식시설' 11.3%, '찜질방'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능 수요

단위: %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 마을회관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활용도가 낮으며 농촌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회관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공동시설이므로 마을회관 본연의 기능인 커뮤니티 기능이 중심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마을회관의 대부분이 경로당과 복합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마을회관을 경로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농촌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능들, 즉 도농교류 공간, 공동생산공간,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마을회관에 관한 정책과 지원도 경로당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마을회관 본연의 기능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고 마을회관 의존도도 대단히 높은 편임

⇒ 농촌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마을회관을 운영할 필요 있음

▢ 마을회관 운영이 노인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주민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되기도 함

○ 마을회관이 노인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 또한 단절되어 있어 주민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노인들도 노인회에 전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 이용에 갈등 요소가 존재함

- 마을회관의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주 이용자 층이 노인회원과 부녀자 층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층은 미미한 수준(12.7%)
- 마을회관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관련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

⇒ 농촌지역 인구 특성상 현재는 노년층이 주 이용자층일 수 밖에 없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

▢ 마을회관에 대한 정책과 지원체계 정비가 요구됨

○ 행정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마을회관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회관 건립 및 증·개축과 관련된 정책사업 없이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초래되고 있음

- 현재 마을회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경로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차원으로 지원함
-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원화해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노인회와 마을회 간 운영비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함. 때문에 마을의 공식적인 총책임자인 이장(마을회)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마을회관에 대한 정책지원 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낙후 오지마을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국가적 지침 마련할 필요 있음

▢ 마을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회관 관리·운영모델 다양화 필요

○ 마을의 인구 구성과 도심에서의 거리, 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마을회관 운영이 필요함. 즉,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인구 구성도 비교적 다양해 마을회관을 방과 후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오지일수록 노인인구 구성비가 높아 노인중심의 프로그램이 더 요구됨

-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과 지원 정책은 이같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마을회관을 복합커뮤니티형, 보건 및 복지형, 공동수익 창출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운영과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와 함께 젊은층과 고학력층의 활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선거철마다 경로당 설치나 복지관 건립 등의 공약이 남발되고 실제로 마을회관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노인을 포함한 농촌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도한 마을 공동시설 설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의 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리모델링에 더 관심을 둬야 함

⇒ 보육사업, 도농교류와 체험 공간 제공,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 인구의 인큐베이터 기능 등 마을회관이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회관의 공간적 제약으로 동일 건축물 내에 다수의 복합기능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마을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부 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8. 21
발 행 2012. 8. 22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46-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